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시마자키 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8 월 6 일의 상황

나는 학도동원으로 당시 사이조에서 기차와 시전(市電)을 갈아타고 1 시간 이상 걸려서 미나미칸온마치에 있던 미쓰비시중공업 (주) 히로시마기계제작소에 통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5 형제 중 4 번째로 형 1 명, 누나 2 명, 아래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은 규슈의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2 중 (히로시마현립 히로시마 제 2 중학교)의 2 학년 때부터 수업은 없어지고 여기저기의 공장을 돌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4 년 말경부터 미쓰비시의 간온공장으로 통근하게 되었습니다.

8 월 6 일 당일은 같은 학교 친구 4, 5 명과 공장으로 향하는 도중 피폭했습니다. 장소는 미나미칸온마치의 종합운동장 부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폭심지에서 약 4 킬로 떨어진 거리입니다. 만약 내가 다음 전철을 탔더라면 원폭투하 시각에 아이오이다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느낌입니다.

피폭 순간은 등 뒤에 번쩍하는 빛을 받았습니다. 목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폭풍이 불고 난 뒤, 나는 뒤로 넘어져 기절했습니다. 기절한 후 5 분 정도 지나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폭심지에서 4 킬로나 떨어져 있는데도 공장은 철골만 남고 지붕은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동원된 공장이 B29 의 폭격을 당한 것이 아닐까? 아니, B29 의 폭격을 당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미나미마치에 있는 가스탱크가 폭발한 것이 아닐까라고 학우들 간에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분명히 경계경보는 해제가 된 후였습니다. 8 시 15 분은 무경계 상태였습니다. 8 시 전에 공습경보가 한 번 울렸습시다만 경계경보로 바뀐 후 8 시 5 분 정도에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사이렌도 들었습니다.

그 후, 「시내가 전부 불바다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은 비가 내리는 속을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에바로 건너가, 요시지마, 센다에 겨우 도착한 후 히지야마 방면으로 가기 위해 미유키바시다리를 건넜습니다. 미유키바시다리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라고 하며. 나는 그저 사람들이 좀 많이 다쳤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어째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니다. 「학생, 물 좀 줘, 물 좀 줘, 다쳐서 너무 목이 마르다네…」라고 하며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무서울 따름이었습니니다. 나는 다행히도 피폭 시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것처럼 상처입은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단지 여우에 홀린 것 같은 발걸음으로 그저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니다.

히지야마산 아래를 지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몸이 새빨갳게 된 군인입니니다. 그는 온몸의 피부가 벗겨져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니다. 숨은 쉬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니다. 나를 보고 시체를 가리키며 「이 사람들을 리어카에 실어서 날라야 하니까 학생, 발 쪽 좀 잡아 주게.»라고 말했습니니다. 나는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니다. 히지야마 산자락 부근은 폭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지,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많은 사람이 시체를 나르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니다. 아마 그 군인은 며칠 못 살고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니다.

밤중 몇 시인가도 모르겠습니니다만 나는 겨우겨우 가이타역에도착했습니니다. 가이타에서 밤중에 한 번 사이조 방면으로 기차가 떠날 지도 모른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 1 시간 이상이나 기다렸다가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기차를 타고 사이조에 도착했지만 주위가 너무도 캄캄해서 누가 마중나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니다. 등화관제를 하던 시대라서 전기나 등불을 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힘들었다고 하던데」라는 목소리만 들릴 뿐 누가 마중 나왔는지 분간을 못 할 상황이었습니니다.

●7일 이후의 상황

삼촌이 히지야마에서 일하시다가 피폭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숙모와 함께 삼촌을 찾으러 히로시마로 갔습니니다. 트럭을 타고 갔는지 어떻게 시내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니다만, 우지나 근처에 수용되어 있을 것이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7일 새벽 무렵부터 나갔습니니다. 나는 2중에 3년간 다닌 덕분에 시내의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니다. 숙모에게 길안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숙모와 같이 나갔던 것입니니다.

우지나의 수용소에서 삼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니다. 수용소는 우지나항에 가까운 창고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니다. 군인이 「아!, 이 사람, 지금, 숨이 끊어졌군, 자 이걸 내놓읍시다.»라며 복도에 시체를 늘어 놓고 있었습니니다. 또 한 군인이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머리쪽을 좀

들어주게。」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2, 3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숨이 끊어진 사람들을 복도로 내 가는 것이었습니다. 20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처녀도 화상을 입어 검게 그을린 채 알몸으로 바닥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우지나에서 사이조까지 삼촌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만, 3 일 후인 10 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화장터에서 태웠습니다. 나도 도왔습니다. 2 년 전에 돌아가신 숙모는 삼촌과 같이 산 세월이 9 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피폭 후의 생활

2 중에서의 수업이 재개된 것은 10 월 말인가 11 월에 들어섰을 즈음이었을까요. 간온의 원래 2 중이 있었던 장소에 오두막 같은 건물을 짓고, 문틈으로 눈발이 날아들며 난방도 없는 속에서 떨면서 수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창문 유리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간온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이타에 있던 여학교 교사를 빌리거나 무너지지 않은 초등학교 등을 빌려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수업을 받지 않으면 단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것도 참으며 수업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오두막 같은 학교지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 제도 중학교였기 때문에 5 학년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이 1947 년의 일입니다. 졸업 후, 센다초에 있는 히로시마공업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자동차가 조금씩 세상에 보급되게 된 1950 년대, 자동차교습소를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삼을 들고 코스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업전문학교에서 취득한 단위를 살려 학과와 실기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땀습니다. 1960 년부터 시내에 있던 자동차교습소에 근무, 주임 교관을 맡았습니다.

1966 년에 나는 자동차교습소를 그만뒀습니다. 형님이 양로원 등을 경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형님 사업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형님은 의사회 회장까지 지낸 분이며 나는 그런 형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경영을 도맡아왔는데 형님은 뇌의 혈관이 터져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너무 한이 맺혀 3 일 낮 3 일 밤을 꼬박 뜯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미야지마나 유키의 시설을 돌보러 돌아다니는 때도 장거리는 내가 운전해서 병원장인 형님을 태우고 돌아다니고는 하였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형님을 도와 왔습니다. 형님은 학문의 외곬수이고 나는 스포츠맨,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형님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취직과 결혼, 후유증에 대해서

아내와 결혼 한 지 50 주년 곧 금혼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때 자신이 피폭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피폭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내에게만은 「원폭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 당시 미쓰비시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5 킬로나 떨어진 미나미칸은 끝쪽에서 약간 피해를 입었을 뿐 다치지도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별로 그런 일에는 개의치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약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학지식도 있고 하여 자신이 피폭 2 세인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조금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지 아무도 모르게 확인했습니다.

후유증으로 걱정되었던 것은 피폭 후 10 년이 경과한 후 목 뒤에 큰 혹이 생겼을 때입니다. 악성이 아니고 양성인 신생물이라고 할까. 커다란 혹이 생겼습니다. 혹이 생긴 곳은 피폭 시에 뒤에서 빛이 발사되었을 때 정확히 빛이 닿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수술해서 혹을 떼어냈습니다만 다시 10 년 후에 혹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요즘은 이제 혹은 생기지 않습니다. 혹이 생긴 것 이외에 피폭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은 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증상은 다릅니다. 나는 머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폭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은 피폭자는 어쨌든 피곤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취직했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빨리 피곤해 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로부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두들 이 정도의 일에는 피곤해 하지 않는데 왜 너는 이 정도의 일로 피곤해 하느냐, 게을러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듣고는 했습니다. 피곤해 지기 쉽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나의 생각

젊은 세대에게 원폭이나 평화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쪽도 어느 정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폭이 떨어진 순간은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졌고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연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지 「무서웠다, 힘들었다」 「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주지 못 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된다-다리 밑에까지 불길의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라고만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폭평화공원에는 자료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평화의 나무가 있습니다。」라고만 해서 원폭의 비참함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들쪽에서 보면 원폭은 그리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번에 북해도에서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마치 원폭이 떨어지던 순간과 비슷했습니다. 정말 현실성을 띤 강렬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그러한 영상을 보면 무엇인가를 느낄 것입니다 원폭도 것처럼 순간적으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불타, 20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해로부터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폭 투하 후 바로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의 프로카메라맨들이 히로시마로 와서 그 참상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종군기자로 몇 번이나 전쟁터에 다녀왔던 그들마저도 히로시마 원폭의 참상만큼 비참한 상황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비참함을 후세에 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전하는 자의 전달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2 중에 재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하급생을 원폭으로 잃었습니다. 또, 최근 세상을 떠난 동급생도 있습니다. 단 하나뿐이었던 형님도 돌아가시고 외톨이가 된 기분입니다. 현재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내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 년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 주일에 1 번이라도, 2 주일에 1 번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좋고 초등학교생이라도 좋으니 마음껏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야기를 한 후에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